

KT, 설 前 인사 유력... '구현모식' 조직개편은 AI·안정

〈차기 KT CEO〉

구현모, 내부사정 정통한 'KT맨' 상무보·팀장 등 인사 속도 낼 듯 AI 강화... 전담 조직 신설 가능성 黃, 차기 CEO 내정자 힘 실어주기

KT가 이르면 이번주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차기 KT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 사장이 구상하는 KT의 밑그림과 향후 경영계획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KT 차기 CEO는 13일 열리는 '2020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구현모호 KT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9일 10여일 동안 진행된 직원 평가를 마치고 10일 승진 관련 기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직원 평가가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인사가 뒤따른다.

승진 관련 기준 등을 바탕으로 오는 16~17일 임원 승진 인사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내주 중에는 상무보·팀장

배치 등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설 전에는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끝내고 설 이후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KT의 이번 인사는 구 사장이 차기 CEO로 내정된 이후 보이는 첫 구상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구 사장은 올해로 33년째 KT에 몸담으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략통'으로 꼽힌다. 경영 지원총괄, 경영기획부장 등을 맡으며 그룹 전반에 걸쳐 높은 이해도를 지니 인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 사장은 별도의 인수위 등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전체 임원회의에서 새로운 CEO가 될 구현모 사장과 모든 일을 논의할 것을 당부하며, 신임 사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폭도 관심이 있다. 구현모 사장이 '안정'에 방점을 찍는다면, 황창규 회장 체제의 연장선상으로 소폭의 인사만 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날 전망이다 있다. 실제 오는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11명 중 최대 7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 /뉴스1

명의 사내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최소 5~6명의 사내외이사 교체가 유력해 보인다.

KT의 전체적인 사업구상도 조직개편과 인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10월 'AI 컴퍼니'로의 재도약을 선언한 만큼 이번 조직개편에서 AI 사업에 집중된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구현모 사장이 CEO로 가며 공석이 된 커스터머&미디어부장 자리에 누가 올지도 관심이 있다.

KT 관계자는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고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적임자를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이 구현모 사장이 향후 끌고갈 KT의 사업방향을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셈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을 마쳤다. SK텔레콤은 5세대(5G) 이동통신

과 '뉴 ICT' 사업의 성장을 촉발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원화 체계를 도입했고, 핵심 사안에 대해 CEO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CIDO(최고혁신설계책임자)'를 신설했다. 임원 조직 체계도 3단계 이하로 축소했다. LG유플러스도 신사업을 위해 디지털 전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DX담당'을 신설하는 등 회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구현모 사장은 조직개편 이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KT 차기 CEO로 선임되면 인수·합병(M&A) 관련 합산규제와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AI 컴퍼니 전환 방안 등 숙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현모 사장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20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황창규 KT 회장 대신 참석했다. 이 자리는 구현모 사장은 지난달 27일 차기 CEO로 확정된 이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하현희 LG유플러스 대표와 나란히 자리하는 첫 공식 행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차, 설 앞두고 협력사에 1兆 조기 지급

“명절자금 부담 완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1조73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위아 등 6개 회사에 부품,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이들에게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일찍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룹은 협력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차 협력사들도 설 연휴 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오고 있다. 작년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1295억원, 1조4181억원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설에도 전통신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약 117억9000만원을 구매하고 국내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현대차그룹은 13~23일 2주 동안 그룹 16개 계열사 임직원들이 결연시설과 소외이웃을 방문해 명절 선물과 생필품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기아차 “고향길 무상점검 받고 다녀오세요”

현대·기아자동차가 설 연휴를 맞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378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799개 오토큐에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설 귀성길 차량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점검해 장거리, 장시간 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및



기아차 설 맞이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마모 상태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 점검 서비스와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SKT, '5G MEC 기술' 亞 통신사들에 전수

〈모바일 에지 컴퓨팅〉

싱텔 등 5개사와 '초협력 체계' 구축 역량 모아 '글로벌 MEC' 공동 개발

SK텔레콤이 차세대 기술인 5G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분야에서 글로벌 '초(超)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SK텔레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신사연합회 '브리지 얼라이언스' 소속 통신사인 싱텔(싱가포르), 글로브(필리핀), 타이완모바일(대만), HKT(홍콩), PCCW글로벌(홍콩) 등 5개사와 함께 '글로벌 MEC TF'를 13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초대 의장사는 SK텔레콤이 맡는다.

MEC는 무선 데이터 전송 지름길을 만들어 ▲클라우드게임▲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 및 차량관제 등 초저지연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는 5G 핵심 기술이다.

이번 글로벌 MEC TF는 브리지 얼라이언스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MEC 개발·구축에 성공한 SK텔레콤에 관련 기술 전수를 요청하고, 여러 통신사가 합류하며 결성됐다.

글로벌 MEC TF에서 SK텔레콤은 싱텔, 글로브 등 연내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회원사에 5G, MEC 성과를 공유하는



토마스 황 타이완모바일 디지털 담당(사진 앞줄 왼쪽부터), 마리아 리 HKT 이동통신 담당 임원, 하민용 SK텔레콤 경영기획2그룹장, 옹 거 취 브리지얼라이언스 CEO, 이강원 SK텔레콤 클라우드랩스장, 루이스 라이 싱텔 임원, 찬 인 천 싱텔 임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한편 각사의 역량을 모아 MEC기술,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경 없는 MEC플랫폼'을 위한 표준 규격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번 초협력 체계 구축은 한국 기술 중심으로 아시아 5G MEC 생태계가 구축되고, 5G 기술·서비스를 관련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5G 핵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MEC 등을 솔루션 패키지로 구성하고 있다.

글로벌 MEC TF 첫 워크숍은 이날부

터 15일까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서 SK텔레콤은 약 30명의 TF 관계자들에게 사흘 간 SK텔레콤의 5G 전략, MEC기반 스마트팩토리 사례 등을 발표하고 미래 체험관 '티움' 및 종로 '롤파크'에 구축된 5G클러스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강원 클라우드랩스장은 "연말까지 약 350개 통신사가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와도 5G와 MEC 협력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K(주), 콜드체인 美 물류업체에 250억 투자

SK(주)가 신선식품 유통 사업으로도 발을 넓힌다.

SK는 13일 벨스타 수퍼프리즈에 25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와 공동투자했으며, 1년 뒤 각각 125억원씩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도 받았다.

벨스타는 저온을 유지해 제품을 배송

하는 '콜드체인' 물류업체다. LNG 냉열을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미국 사모펀트 이엠펜 벨스타가 설립해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벨스타는 지난해 평택시 오성산업단지에도 현대식 저온 물류센터를 준공해 가동 중이다. 앞으로 인천항만공사 초

저온 복합 물류센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 확장 계획도 있다.

SK는 국내에서 처음 LNG 냉열 활용 기술 보유 회사 지분을 보유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벨스타 기술은 LNG 냉열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전기요금도 최대 70% 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